

올 여름 평년보다 덥다 폭염일수·열대야 늘듯

라니냐 이달 종료 땀 북태평양고기압 강화...광주·전남 짙통더위 예고

기상청 6~8월 날씨 전망

올 여름에도 펼 펼 끊은 무더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이 24일 밝힌 '3개월(6-8월) 날씨전망'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의 오는 6-7월 기온은 평년(1991-2020년)과 비슷하거나 더 덥고 8월은 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됐다.

기상청은 6-7월의 경우 평년 기온보다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40%, 8월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로 내다봤다.

6-8월의 평년기온은 각각 21.5도, 25도, 26도였다.

하지만 기온이 달라졌다는 점에서 예년보다 무더운 날씨가 예상된다는 게 기상청 설명이다.

올해 기후전망의 경우 지난해까지 사용되던 평년값(1981-2010)이 아닌, 새로운 평년값(1991-2020년)을 기준으로 삼아 6-7월의 평년기온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새로운 평년값을 반영하다보니 예전엔 '평년보다 높음'으로 표시했을 기온도 '비슷'으로 나타난 경우가 있고 특히 6월은 구평년값 기준으로 보면 기온이 높을 확률이 더 높다"고 덧붙였다.

8월의 경우 덥고 습한 공기의 영향을 주로 받으면서 열대야가 발생하거나 낮 동안 고온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평년보다 더 더울 것으로 예측했다.

무더위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폭염, 열대야도 잦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폭염은 하루 최고 기온인 33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지난해 폭염일수가 광주 13일, 전남은 4.5일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점쳐진다.

기상청 예보대로라면 열대야 발생일수도 지난해(광주 17일, 전남 17일)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다만, 기상청의 지난해에는 양의 북극진동이 나타난 반면, 올해는 음의 북극진동이 이어지고 있어 여름철 한기가 남하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국지적 집중 호우도 예보됐다. 기상청은 여름철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고 강수량의 지역 차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했다. 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북태평양고기압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면서다.

기상청 관계자는 한·중·일 장기예보전문가 회의에서도 올 여름철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소 북쪽에서 발달, 국내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대부분에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로 예상치 못한 이상기후 패턴이 발생할 수 있고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압계 변화가 클 수 있다"며 "매월 발표되는 3개월 전망과 매주 발표되는 1개월 전망을 적극적으로 참고해달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초여름 날씨 속 광주천변 징검다리...물줄기가 반기네



광주지역 낮 최고기온이 25도를 웃도는 등 초여름 날씨를 보인 24일 오후 광주 서구 유덕동 광주천변 징검다리를 시민들이 건너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못 말리는’ 낚시객들

여수해경, 출입 금지 다도해국립공원에서 낚시하던 15명 적발

출입이 금지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 낚시를 하던 15명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여수해경은 23일 새벽 3시 40분께 여수시 삼산면 대삼부도에서 낚시하던 낚시객 15명을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2일 오후 2시께 여수시 소호항을 출발, 23일 오후 5시께 대삼부도에서 낚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삼부도는 거문도 인근에 있는 무인도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 특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출입이 금지된 곳이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출입 금지를 위반하면 10만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낚시할 때 입도가 가능한 무인도인지 사전에 정보를 알아봐야 한다"며 "무단출입한 낚시객들은 입도 사실을 확인하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초등생이 후배 때려 증상”

경찰, 신고 받고 수사 나서

초등학생이 같은 학교 후배를 때려 증상을 입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광주 서구 금호동 A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받던 6학년 B군이 3학년 C군을 때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B군은 얼굴과 머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수술·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서부경찰 관계자는 "피해 신고가 접수된 데 따라 조만간 피해학생 보호자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풍수해보험으로 자연재해 대비하세요”

보험료 1만8000원 부담

광주시, 가입 홍보 나서

광주시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시민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에 나선다.

광주시는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북구와 광산구 전지역, 동구·서구·남구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에 사유시설 피해 접수를 받아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세대당 지원금 합산 금액이 최대 5000만원을 넘을 수 없어 피해가 클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풍수해보험은 주택 80㎡ 기준 보험료가 약 6만원인데, 일반 시민의 경우 정부에서 4만2000

원을 지원해 주고 개인은 1만8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보상 혜택은 가입과 보상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주택 전파의 경우 7200만원의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공동주택, 세입자 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이며, 공동주택 단지를 단체로 하는 계약의 경우 공동 소유인 기계실, 전기실, 노인정, 관리사무소 등이다.

풍수해보험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업자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각 구청 재난관리 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보험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채플 수강 강요는 종교 믿지 않을 자유 침해”

“대체수업 개설 방안 마련하라”

인권위, 광주 모 대학에 권고

대학이 채플을 듣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게 하고, 대체 교과목도 개설하지 않은 것은 학생의 '특정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채플 수강을 강요하는 광주 A대학 학내 규정에 반발한 재학생의 진정을 인용해 A대 총장에게 대체수업을 개설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대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종립대학교로, 보건분야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표로 하면서 기독교 신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학과를 두고 있거나 신입생의 지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지 않았다.

A대 측은 "채플 수업은 포교 목적이 아니고 종교 전파에 대한 강제성을 갖고 있지 않다"며 "대표 기도를 드릴 학생은 학과에서 추천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대가 학생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사실상 종교 교육을 강요했다

고 판단했다.

A대 채플은 설교·기도·찬송·성경 봉독 등으로 구성돼 사실상 교회의 예배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게 인권위 판단이다.

인권위는 "우리 대학 구조상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그중에서도 30% 이상이 종립대학"이라며 학생에게 대학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권위는 "종립 사립대는 건학이념에 맞춰 교과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종교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종립 사립대의 종교 교육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교육받을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는 길은 수강 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 과목을 개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엄마, 보고 싶어요

음주운전!
당신 자녀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2018년 음창호변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meritz 메리츠화재 | 한화손해보험 | 롯데손해보험 | MG손해보험 | Heungkuk 흥국화재 | 삼성화재 | 현대해상 | KB손해보험 | DB손해보험 | SGI서울보증 | AIG | 아나손해보험 | NH농협손해보험 | KOREAN | BNP PARIBAS CARDIF | CHUBB | Carrot